

제공일자	2011. 11. 1(화)	담당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14	총3매

제목 :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개인 생명보험의 성장을 위해 보장단가(보장금액/보험료)를 높이고 순수정기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란 『보험동향』 테마진단을 통해 “국내 생명보험의 보장비율(보장금액/GDP)*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해 미국, 영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사망위험의 보장수요는 제한적인 반면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장수요의 확대를 위해 보장단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보장비율 : 개인생명보험의 보장비율(보장금액/GDP)은 개인계약자가 사망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정도의 추이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지표로 사망보험의 수요를 의미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개인생명보험의 보장비율은 2000년까지는 일본의 1/3수준이고 미국과 영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후에 크게 증가해 미국과 영국을 훨씬 앞지르고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수요는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첨부자료> 참조).

둘째, 국내 개인생명보험의 가용도(개인생명보험료/가처분소득)는 2009년 현재 10.933%로 미국 2.061%, 영국 3.316%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일본 8.378%에 비해 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개인생명보험의 수요는 상당히 포화된 상태라고 해석된다.

셋째, 2009년 국내 사망보험의 보장단가(보장금액/사망보험료)는 45.6로 미국(104.7)과 영국(76.3)에 비해서 매우 낮고, 일본 51.2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다. 국내 보험회사는 보장기능 강화를 통해 보장단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저소득층 계층이나 고위험자 계층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순수 정기보험을 개발하여 비대면 판매채널을 활용한 판매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 첨부 자료 >

1. 보장비율 산출결과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0.083	1.547	0.644	-
1985	0.353	1.820	0.777	0.781
1990	0.045	2.418	0.929	0.932
1995	0.344	2.952	0.929	0.969
2000	0.850	2.603	0.942	1.050
2005	1.298	2.128	0.789	0.945
2006	1.322	2.009	0.751	0.964
2007	1.319	1.902	0.728	0.951
2008	1.291	1.910	0.714	1.067
2009	1.255	1.905	0.731	1.126
CAGR(15)	9.7	-3.1	-1.7	1.1
CAGR(5)	-0.8	-2.7	-1.9	4.5

주 : CAGR(15)은 최근 15년간 누적평균증감율, CAGR(5)은 최근 5년간의 누적평균증감율을 의미함.

2. 보장비율의 특징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보장 비율 (%)	1985	0.353	1.820	0.777	0.781
	1995	0.344	2.952	0.929	0.969
	2009	1.255	1.905	0.731	1.126
	CAGR(15)	9.7	3.1	-1.7	1.1
2009년 구성요소 (CAGR15)	생명보험가용도(%)	10.9(0.5)	8.4(1.9)	2.1(-9.0)	3.3(-0.9)
	사망보장단가	45.6(0.3)	51.2(-7.9)	104.7(4.1)	76.3(5.7)
	사망보험선호도(%)	42.5(9.6)	72.7(-1.2)	43.3(-1.1)	65.8(-1.2)
	가계비중(%)	59.3(-0.8)	61.1(0.0)	78.2(0.4)	67.5(-0.1)
	보험침투도(%)	6.5	7.8	3.5	10.0
	보험밀도(달러)	1,180.6	3,138.7	1,602.6	3,527.6
사회 환경요소	고령사회 도달연도	2018년	1995년	2014년	1975년
	65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30.1%	20.1%	17.2%	7.8%
	가계의 금융 자산비중	21.4%	58.7%	64.9%	45.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2.1	33.9	38.7	30.8
	가계저축률	3.2('10)	3.2('10)	6.5('10)	-3.6('08)

주 : CAGR(15)은 최근 15년간 누적평균증감율을 의미함.